



이 동 영
(주)효성 대표이사

21C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설비공급관련 기업의 당면과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듯 에너지, 환경, 경제의 이른바 3E의 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게 도입을 강요받고 있는 민영화 및 규제완화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에너지 산업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는 에너지 산업에 보다 많은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공공사업인 가스 및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을 예로 들면 단기적으로는 발전부문을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분할된 발전회사는 단계적인 민영화로 효율성 증진을 통한 발전원가의 절감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 배전부문도 수 개의 배전회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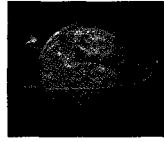
나누어 전력 도·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송전망을 개방하여 민간업체도 전국적인 송전망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명실공히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작업이 실행될 새로운 천년의 초반기에 우리 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현재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기장에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선수, 특히 외국의 잘 훈련받은 강력한 선수를 상대하여야하는 새로운 게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발전 부분의 민영화 및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발전사업자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발전설비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민자발전 사업자들은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설비비인하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이고,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세계화로 전세계의 시장은 단일

**설계 및 제조 공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합리적인 자재조달을 통한
총체적 비용개선,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에
기업내 전조직원의
사활을 건 분발이
필요하다.**



화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국내시장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발전설비 공급자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기존의 틀을 깨는 수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민자발전 사업자 등 신규 시장 진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기존의 발전사업자들과는 차별화된 고도의 기술, 최신의 서비스 및 수준 높은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력의 도·소매 부분에 경쟁이 도입되는 경우 전력 수요자는 전력 공급자가 좀더 유연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효율적이고, 경쟁사보다 저렴하며 또한 적기에

**시대적인 변화는 에너지산업에 보다 많은 기회 제공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을 가져온다.
다수의 기업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필요한 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를 요구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수준은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 천년은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추세로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는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다수의 기업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사활을 건 기업활동을 전개하겠지만 소수 기업만이 살아남는 치열

한 생존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는 설계 및 제조 공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합리적인 자재 조달을 통한 비용효과의 극대화 등 총체적인 비용개선 활동과 수요자의 요구를 앞지르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에 경영자는 물론 기업내 전조직원이 사활을 건 분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